

지역 소식통

부안군, 내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 개최

부안군은 30일 군청 대강당에서 예산편성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부안군 재정운용 방향과 원칙,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통교부세 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전산유력 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앞두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설명 등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실무중심으로 실시했다.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시적 경제상황까지 고려해 전략적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예산편성체제로 전환해 예산심의실 운영 등 오는 11월까지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디지털·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고창군이 비 문해자 없는 행복고창 만들기를 위해 디지털·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2019년 1회 고창군 문해교육사 양성 이후 4년만에 개설됐다. 문해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문해능력을 갖춘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사)한국문해교육협회가 공동 시행, 학습자 19명을 대상으로 10월 23일 까지 12회 총 72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 중 전라북도 타·시군의 문해교육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전라북도 문해의날 행사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습자는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글을 읽거나 이해가 어려운 비문해자와 지식을 나누는 것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 선정

사업제안서 평가위... 매그놀리아 용평호텔엔리조트로

고창군이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할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매그놀리아 용평호텔엔리조트'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창군은 공모 접수를 통해 용평리조트로부터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제안을 제출받았다. 이어 지난 28일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검토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9월에는 고창군과 우선협상대상자간의 실시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민간투자자가 본격화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용평리조트와 양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전라북도까지 포함한 3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용평리조트의 민간투자(3500억원)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협조 관계를 공고히 했다. 용평리조트는 앞으로 단계별 사전절차를 거쳐 2025년 사업착공, 2028년까지 고창군 심원면 일대에 서해안과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을 조망할 수 있는 휴양형 복합리조트 및 레저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최소 300실 이상의 중대형급 숙박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대규모 관광객 및 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고창군의 숙원사업인 '버블리기는 관광 조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 추진



을 통해 6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변 관광 인프라와 상권이 형성돼 고창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과정에 있어 각종 사전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향사랑기부금 3억원 돌파... 유동현 변호사에 답례품 전달

기관·사회단체들 공동 노력... 우수 성과·저력 보여

고창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이 3억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이 3억원을 돌파했다.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그간 재외 군민화와 애향운동본부, 관내 기관사회단체들의 공동 노력 속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고창군의 저력을 보여줬다. 현재 고창풍천장어, 구구마 등 66개 답례품을 선정해 고창의 우수 농수축 특산품을 전국에 홍보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법무법인 현을 유동현 대표변호사, 고창고(72회)가 고창군에 기부



했고, 군은 3억원 돌파를 기념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전달했다. 유동현 대표변호사는 "고향사랑기부

금 3억원 달성이라는 의미있는 기부가 돼서 기쁘다"며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고창발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기부금 3억원을 달성을 계기로 기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하반기 명절, 연말정산 시기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타지에서 묵묵히 생업에 임하고 계시는 많은 향우들의 응원에 힘입어 고향사랑기부제가 고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로 안착하고 있다"며 "기부자들의 고창발전 열망을 실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고품질 김장채소 적기 정식 후 관리 당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김장 채소의 적기 파종과 정식으로 고품질 김장채소 생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김장채소의 파종 적기는 8월 중순부터 하순경으로 가을 재배 시너무 일찍 파종하면 바이러스 및 뿌리마름병 피해를 받을 수 있고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재배 수확이 어려워진다. 파종 시기는 8월 중순에서 하순경이며, 배추묘 정식 적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으로 파종과 정식작업은 흐린 날 오후에 하면 뿌리 활착이 빨라 생육이 좋다. 품질 좋은 김장채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토양관리와 비료공급이 중요하며, 정식할 포장은 이주심기 10~15일 전에 완숙되거나 석회, 붕사 등을 포장 전체에 뿌린 후 트랙터 등으로 갈아 흙과 잘 혼합되게 해야 한다. 또한 이랑을 만들기 전에 포장 전체

에 밑거름과 토양살충제를 살포하고 밭을 깊이 갈아 흙을 잘게 부석 뿌리가 잘 뻗어 내려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배 및 관리를 양호하게 하면 파종기를 이용하여 점파 후 밭에 빈 곳(결주)이 없도록 한 곳에 3~5립씩 파종한 후 2~3회 솟아주는 것이 좋다. 배추 정식은 모가 너무 크면 초기 생육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파종 후 15~20일 정도 길러 잎이 3~4개 정도 자랐을 때(8월 하순경) 흐린 날 오후를 선택해 본 밭에 옮겨 심고 깊이는 모를 기를 때 심어졌던 깊이만큼 심어야 활착이 빠르고 초기 생육이 양호하다. 김원심 기술보급과장은 "품질 좋은 김장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현장 기술지도도 강화하고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현장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도도 고품질 김장채소 생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국 청년 크리에이터, 고창서 한달 살기 시작

전국의 청년들이 고창군에서 한달간 머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청년 한달살기'가 본격 시작됐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청년 크리에이터, 고창 한달살기' 프로그램에 선발된 전국의 청년들 5개팀과 함께 29일 뿌리조각공원서 입소식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한 달 동안 고창의 이곳 저곳을 여행하며, 직접 경험한 고창의 관광자원, 문화행사, 농촌체험 후기 등을 개인 SNS에 올리게 된다. 현지인들만 아는 관광 명소와 맛집을 찾아 고창의 숨은 매력을 느끼고, 고창의 산책을 통해 진짜 자아를 찾아 갈 예정이다. 소정의 참가비만 내면 한달 동안 숙박이 제공되고, 귀농과 창업 등 정착 이후 삶을 준비할 기회도 마련된다.



운영사인 (유)코스모팜 오세훈 이사는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고창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청 이영운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고창 청년의 삶을 자유롭게 체험하여 타지역 청년들에 고창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신규 임용 공무원 청렴캠페인

정읍시는 지난 29일 대회의실 입구에서 2023년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반부패 청렴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2023 정읍시 부패방지 청렴도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학수 시장과 국·소장 및 직속 실과장으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추진단원들이 참여해 청렴 홍보물품과 부패·공익신고제도 홍보자료 등을 배부했다. 홍보물품에는 청렴슬로건 '청렴한

정읍시 우리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를 부착해 내부적으로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읍시는 2021~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를 실천하고자 반부패 청렴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의 주요 핵심전략은 △공직내부 청렴분위기 조성 △의부제감도 향상 방안 적극강구 △직원 청렴 감수성 강화 △신뢰와 소통에 기반을 둔 청렴문화 확산 △내외 취약분야 집중 관리 개선 등이다.



특히 이학수 시장의 청렴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받아 볼 수 있도록 발송하는 청렴 서한문,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감질예행) 교육 실시, 시장 주재 기관의 청렴이행을 점검하는 반부패 청렴추진단 운영회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읍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정보를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의 경우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및 동물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또한 시에서 동물등록과 연계해 추진 중인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에 한해 동물등록비 3만원을 가구 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없애거나 의심한 자라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 관할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합당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예방활동가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특징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어른이 올 때 눈치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겁에 질리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